

② '좋은 펀드'가 선택될 수 있는 시장 여건 조성

① 투자판단에 필요한 '핵심정보'를 '알기 쉽게' 제공

- (판매단계) 알기 쉽고 핵심적인 (표준)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하여, 이를 기초로 핵심정보를 판매과정에서 반드시 설명

* (i)운용사·펀드매니저의 과거 수익률 반영, (ii)투자비용은 단일 가격으로 제시

- (판매이후) 수익률·환매예상금액 등 핵심정보를 문자 메시지, 스마트폰 앱(App) 등으로 매월 제공

② 판매사가 추천펀드를 선정·배제시 기준·사유를 함께 공시

③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의 25%로 축소(현행 50%)하되, 시장부담을 감안하여 年 5%씩 단계적 축소('18년 45% → '22년 25%)

*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낮은 클린클래스 등에 대한 예외적용 예정

④ 이해하기 쉽게 펀드 클래스 명칭 정비(예: A 클래스 → 장기투자형)

⑤ 펀드투자 이후 일정기간(예: 1년)이 경과하면 자문비용이 없는 보다 저렴한 클래스(온라인, 클린 등)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

③ 펀드 판매·운용 규제 합리화

① 불필요한 규제비용 감축

-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완화(분기 → 반기)

- 펀드판매 직원 등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, 자기계산으로 거래한 매매명세 징구 주기 완화(분기 → 年 1회)

②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 운용 지원

- 국공채에 대해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

* 동일증권에 25%까지 투자시 자산총액 50% 이상을 5%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해야 하나, 예외적으로 국채 30%, 지방채·특수채 등 10%까지 투자 허용

- 증권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

* 해외 증권시장 거래중단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수요로 인해, 펀드자산 매각이 불가피해지는 투자자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 금전차입 허용

- 실물펀드의 금전대여 및 일정한도내 차입 허용

* 실물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및 일정한도 내 차입을 허용하여 운용상 제약을 완화

- 공모펀드의 손익배분 차등화(선순위·후순위) 허용

다. 사모펀드 : '전문가 투자시장'으로서 역동성 제고

① 신규 진입 지속 허용을 통한 경쟁촉진

*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(개) : ('15말) 20 → ('16말) 91 → ('17.9월) 120

① 현재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신청(13건)은 조속히 처리

* 현재 금감원 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심사 작업반 운영 중

②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추가 진입 확대(최소자본금 20억원 → 10억원)

③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GP 등록 절차 없이 PEF 설립·운용 허용

* 전문사모운용사 설립요건이 PEF GP 대비 엄격한 만큼 별도의 GP 등록 없이 PEF 설립을 허용(현재는 16개 전문사모사가 GP 등록 중)

④ 부실 자산운용사의 과감하고 신속한 퇴출

② PEF(private equity fund) 제도 개선

① PEF 투자가능 자산에 CB, BW 이외에도 유사 속성을 지닌 금융상품*을 포함하는 등 운용규제 개선

* 전환우선주, 전환상환우선주 등

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(신기사)의 PEF 설립 시 금산법상 출자승인 심사 부담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준으로 완화

* (현행) 최대주주, 주요주주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,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(개선) 최대주주, 주요주주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

라. 기타 현장밀착형 제도개선 추진

①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완화

* 투자자가 수령거부 의사 표시하는 경우 등에는 교부 의무 면제

② 금융상품 자문업자(자본금 1억원)의 자문대상 상품 확대

* (현행) 예금, 펀드, 파생결합증권(ELS) → (개선) 파생결합사채 추가

③ 일임업자의 선관의무 구체화 등 「투자일임 모범규준」 제정

- 제도개선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·확정하고, 추진일정(첨부 참조)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
-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(예: 입법예고 등) 등을 거쳐 입법화 추진

※ 첨부: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